

곡성군,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 위해 동계 예찰 강화 의심 주발견 시 신고 당부

곡성군이 과수화상병이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계 예찰 강화에 나섰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사과, 배 과원(면적 약 127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집중예찰을 실시한다.

이번 예찰은 취약 과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 예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징 발견 시에는 즉시 시료를 채취해 확정판정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농가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사항도 집중 홍보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서는 평소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지·전정 등 농작업 도구와 작업자 소독을 꼭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가 자가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다. 잎이 떨어지지 않은 나무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실시해 가지변색이나 줄기터짐 등 의심 주발견 시 농업기술센터(061-360-7361~3)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15년이다. 이후 2019년까지 경기도와 충북,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다가 2020년에는 전국 5개 시도 1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곡성군은 2021년에도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3~4월 개화 전에 사과, 배 전체 농가에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절기 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고, 병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해 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인구유입 ‘청신호’

정주여건 개발 사업 통해 인구 증가 기반 조성 주소 갖기 운동 등 통해 지속 가능한 토대 마련



담양군이 정주여건 개발과 인구유입정책 추진을 통해 최근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담양군 인구는 지난 2007년 5만441명을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4만 6,000명을 기록한 후 인구 5만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먼저 담양애(愛)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며 관내 기업체·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숙사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의 인구유입정책을 통해 고령인구의 자연감소세를 극복했다.

특히 담양읍과 수북면 일대에 조성한 담빛문화지구(구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최근 준공 되는 등 정주여건 개발사업의 안료는 직접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된 담양만의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적극 홍보해 지속가능한 담양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빛문화지구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새로 부여된 명칭으로, 담양군이 추구하는 생태와 인문학, 문화가 융합된 담양의 이미지를 담았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구례군의회는 유시문 의장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기초의회의원 중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기초의회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유시문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및 지방의정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유시문 의장은 구례군의 토박이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이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구례=박진희 기자

나주시, 금연지도원 위촉...올해부터 금연구역 집중 계도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공원 등 점검...간접흡연 예방으로 시민 건강 증진

나주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규범 확산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을 위한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나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



원은 내년부터 관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에 나선다.

또 금연 캠페인, 금연 조치 위반 신고 및 자료 제출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식 나주시 보건소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PC방, 공원, 음식점 등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 처벌보다는 시민의 금연 실천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예방을 중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어 ‘여성친화도시 지정’

4대 분야 63개 여성친화 사업 추진...3대 친화도시 조성 성과

화순군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시로 지정(신규 지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지정한다.

◆ 화순군, 도·농 융복합 화순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성가족부는 사업기반 구축 정도,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추진 계획, 성과지표 2개 항목의 6개 지표를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지정한다.

그동안 화순군은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명품 화순’을 비전으로 지난해 7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여성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여성친화도시 세부과제 선정 컨설팅,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운영하며 여성친화도시 제도적·인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민 40명이 참여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구성해 역량 강화 교육, LED 로고 제터, 안심거울 설치, 가족센터와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화순군은 ‘도·농 융복합 화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농촌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실현, 여성친화 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 세대 돌봄 기반구

축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화순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지역 사회 안전 증진·가족친화 환경 조성·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5대 정책 목표로 삼고 4개 분야의 6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3대 친화도시 추진 성과...“누구나 살기 좋은 화순 만들 것”

농촌 융복합 여성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취창업·창업 지원, ‘화통(화순군민과 소통하는)’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화순형 돌봄공동체 ‘전지역 돌봄 공유 시점’ 운영,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그동안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 복지’라는 과제로 3대(아동, 여성, 가족,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봤다.

지난해 12월 11일 전국 군 단위 6번째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30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

구종근 화순군수는 “아동·여성·가족·고령 3대 친화도시 조성은 모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경제·주거·안전·복지 등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며 “앞으로 여성의 일자리, 돌봄,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